

## 이웃에 새가 산다.

허은영

올해 여름, 담장 너머 앵두나무 주위로 다섯 마리의 새들이 모여들었다. 볼에 붉은빛이 도는 연지를 찍고 회색빛이 그라데이션으로 물든 깃털을 하고 있었다. 울음은 또 얼마나 시끄러운지 세상 억울한 표정으로 돌고래 소리를 내곤 하는 우리 막내와 매우 닮아서 창문으로 고개를 내민 적도 여러 번 있다.

무리 중 한 마리가 빨강계 익은 앵두 한 알을 표족하고 긴 부리로 따서 물고는 담장 위로 포르르 날아가 앉길래 당연히 달콤한 열매를 제 입에 넣을 줄 알았다. 그런데 자신보다 좀 작은 몸집을 한 새에게 먹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 새는 기다렸다는 듯이 눈빛을 초롱초롱 빛내며 앵두나무 열매를 받아먹었다. 이쯤 되니 저 한 무리의 새들이 궁금해졌다. '알에서 깨어나 보송한 솜털인 채 어미 새에게서 먹이를 받아먹기 위해 입을 쩍 벌리고 뽀뽀 소리를 내던 아기새는 자라서 비행 연습을 마치면 등지를 떠나 독립한다'로 도식화된 새에 대한 얕은 선입견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이미 성채로 자라 충분히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새에게 열매를 먹여주고 있는 어미 새의 행동에서 '백인백색 (百人百色)'이란 단어는 비단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백조백색(百鳥百色)'일 수도.

더군다나 저 새들은 집단생활을 한다. 대가족이다. 내게 익숙한 우리 동네 새들은 모두 여러 마리가 무리를 이루어 생활한다. 동네 5층 건물 옥상에 터를 잡은 까마귀 떼는 4마리 공동체다. 옥상 안테나를 훑대 삼아 쉬고 있는 그들은 정말 '오합지졸'인가 할 정도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가 많다. 비둘기는 또한 어떠한가. 고속도로변 가림막 위에 일렬로 앉아 있는 비둘기 떼는 회색빛 가림막과 은근한 조화를 이루며 마치 성벽 위를 장식한 조각상처럼 보일 때도 있다.

포털사이트를 열어 검색해 보니, 그 새들의 이름은 익숙하게도 '직박구리'였다.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텃새로, 한 번쯤 이름을 들어 본 사람은 많아도 실제 직박구리와 연관시킬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한다. '모성애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구절을 읽으며 다 큰 아이에게 밥을 떠 먹여주듯 하는 직박구리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로도 종종 직박구리의 모습을 동네에서 목격할 때가 있다. 잠자리를 사냥해 전깃줄 위에 앉아 식사를 즐기기도 하고 잘 익은 감을 쪼아 먹기도 한다.

나는 문득 그들의 집은 어디일까 생각해 보았다. 동네에서 자주 발견될 뿐, 새들의 등지를 본 적은 없기 때문이다. 비둘기들만 해도 그렇다. 그 많은 비둘기

때에게 등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동네 터줏대감인 까마귀 때도 옥상 안테나에 자주 모여 있지만 등지를 만들지는 않았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게 아닐까. 도시에 등지를 짓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지 말이다.

아이들과 저녁 식사 후 산책 겸 놀이터를 찾았을 때의 일이다. 놀이터 입구를 지나 플라타너스 나무 밑을 지나고 있는데 어깨 위로 무언가가 떨어졌다. 꽤나 묵직한 존재감에 뒤를 돌아보니 비둘기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비둘기는 땅에 떨어진 채 움직이지 않았고 나도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순간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나무 밑을 지나다가 비둘기에 맞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 비둘기는 죽은 것일까. 죽었다면 사인은 자연사 인가.....

비둘기가 죽은 모습은 적잖이 목격했었다. 그런데 그것은 저렇게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다. 차에 치여 몸이 뭉개진 채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이거나 이미 시간이 흘러 쥐포처럼 말라 아스팔트에 붙어버린 채 머리카락이나 다리만 남아, 한때 비둘기였던 존재감을 간신히 드러내는 그런 모습 정도.

그렇지, 비둘기도 수명이 다되거나 병에 걸리면 이렇게 죽겠지. 그런데 그들은 등지가 없는 걸까? 평생 힘들게 날아오르며 새끼도 키우고 했을 텐데 임종을 맞아 스스로 누울 등지 하나 없어서 두 다리로 나뭇가지를 움켜쥐다 힘이 다 되면 이렇게 떨어져 죽는 것일까.

이대로 놔두었다가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힐 것 같아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떨어진 비둘기의 몸을 감쌌다. 아직 따뜻했다. 그리고 보드라웠다. 꽃무늬 손수건을 두른 비둘기는 공원 구석의 나무 밑에 놓아두었다. 야생동물의 사체 처리 방침을 모르기도 했지만, 비둘기가 평생을 의탁했을 곳이기 때문이다.

도시의 새들에게 등지는 사치일지도 모르겠다. 나무는 부족하고 등지는 언제 철거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간신히 공동주택의 베란다나 주차금지 표지판 안에 등지를 틀고 알을 낳기도 한다.

우리 동네의 경우 가까이 수봉산이 있으니 수봉산 자락 어딘가에 등지를 틀고 먹을 것을 찾아 동네로 원정 비행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수봉산이 '별빛마루'로 새 단장을 했을 때, 인공조명이 쏘아올린, 나뭇잎마다 흡사 반딧불이처럼 반짝이는 불빛의 향연을 감상하며 '새들이 숙면(熟眠)에 들기는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이런 불편한 지적 따위는 접고 그냥 즐기면 되겠지만 수시로 조명을 바꾸는 탑과 별빛처럼 반짝이는 조명들 그리고 음악과 어우러진 홀로그램들이 밝고 아름다울수록, 나무 위에 등지를 튼 새들의 눈은 붉게 충혈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걸을 조금 내어 주는 것. 그리고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도시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정도인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하다.

도시에는 인간과 공존하며 여러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다. 도시의 꽃과 나무들, 곤충과 풀, 고양이와 새들을 비롯한 동물들. 그들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인간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하필 그곳이 인간이 사는 도시여서 그들의 삶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차량들과 해충 구제를 위한 제초제들, 그리고 인간의 손길 그 자체가 위험 요소일 때도 많다.

공원에서 비둘기에게 과자를 나누어 주는 대신 깨끗한 물과 전용 먹이를 급여하는 것, 등지 없이 고속도로변 가림막 위나 옥상의 안테나 위에서 위태로운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새들에게 등지를 지어 주는 것, 도시 재생 사업계획서에 도시의 동물들을 위한 내용을 한 줄이라도 마련하는 것, 조명을 설치하더라도 새들을 위해 나무 위는 조도를 줄여 주는 것. 그들과의 공존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이외에도 많을 것이다. 원래 그들의 터전이었던 곳에 인간이 집을 짓는 대신 그들의 생명권도 보장해 주는 태도가 '공존'을 위한 첫걸음일 것이다. 흔히 '버드 스트라이크'라 불리는, 새들의 충돌 사고를 막기 위해 고속도로변이나 활주로 주변의 가림막에 독수리를 그려 넣는 것이 기초적인 생존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라면 이제 그들과의 '공존'에 드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 논의 할 때인 것 같다.

비둘기를 '유해 동물'로 지정하고 먹이를 주지 말도록 권고하는 캠페인은 지극히 시대착오적인 발상 같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새들에게 '유해 동물'은 인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새들을 관찰하는 것, 굳이 '버드 워칭'이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그것은 나와 아이들의 일상에 행운처럼 찾아오는 이벤트이다. 수봉산에서 사람과 같이 산책하는 까치를 보는 것도, 월미산에서 부지런히 나무를 쪼아대는 딱따구리를 관찰하는 것도 재미있지만 동네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새들을 관찰하는 시간은 그들의 모습을 가까운 거리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운 좋은 기회이다. 자세히 보면 까마귀는 '까악까악'하고 울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을 얼마전 막내와 나무 위 까마귀를 관찰하며 알게 되었는데, 그 까마귀는 '아악아악'울고는 마치 양치질 후 입을 헹구는 것처럼 부리를 하늘을 향해 벌리고 '가아아악'하는 행동을 반복했다. 막내와 나는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뜨고는 한참 동안 까마귀의 새로운 울음소리를 흉내 내며 웃었다.

소래포구에서 마주친 갈매기들을 보며 나와 아이들은 정말 배를 부여잡고 웃음을 웃었던 기억이 있다. 항구에 쌓여 있는 생선들을 훑쳐 달아나는 갈매기도 해학적이었지만 전깃줄에 일렬종대로 모여있는 갈매기들이 균형을 잡기 위해 몸을 앞뒤로 흔들며 안간힘을 쓰면서 괄약근을 움찔거리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그야말로 포복절도할 웃음을 한참 동안 웃었다. 그 후로 막내는

한동안 잠자리에서 '바삭 갈매기'라는 책만 반복해서 읽을 정도였다.

이렇게 우리 이웃에는 여러 종류의 새들이 살고 있다. 길을 가다 마주치기도 하지만 보통은 울음소리로 그 존재를 알리는 때가 더 많아 올려다보지 않는 한 그들의 존재를 잊고 지낼 때가 더 많다. 크게 상관은 없다. 우리가 잊거나 해도 그들은 우리 곁에 있으며 우울하고 나쁜한 어느 날 부침개 한 접시를 들고 오는 이웃처럼 포르르 날갯짓과 생생한 소리로 우리를 방문할 것이다.